

AIR FORCE CRUZEX 2018

브라질주최 남미 최대규모 공군훈련

CRUZEX 2018

글 | 장상호 사진 | 장상호



브라질 공군이 주도하는 남미 국가들의 최대 규모 다국적 공군 연합훈련 CRUZEX 2018이 11월 18일부터 30일 사이 브라질 나타야(Nata) 공군기지에서 13개국에 참가하여 열렸다. 올해 훈련은 2013년에 이어 오랜만에 열린 훈련으로 2000 명의 병력과 각종 항공기 100 대가 브라질을 비롯하여, 캐나다, 칠레, 프랑스, 페루, 우루과이, 미국 등에서 참가했다. 브라비아와 인도, 스웨덴, 영국 및 베네수엘라는 앞서 버 병력을 참가시켰고, 단골 참가국인 콜롬비아가 미국에서 레드 플래그 훈련을 마친 직후인 까닭에 이번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CRUZEX는 2002년부터 브라질 공군에 의해 개최되는 다국적 훈련으로 참여국 간의 경험 교환을 촉진하여 분쟁 시나리오 하에서 공동 대응을 목표로 한다. CRUZEX는 공중 모의 전투훈련에 집중하여 펼쳐진다. 참가국 항공기들은 지역 내 평화 유지 및 안정 작전, 인도주의 대응 활동 중 민간 당국 지원, 자연 재해의 여파에 대한 지원 참여 등 중남미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다양한 가상 시나리오 하에 참여국간

에 전투 훈련 및 인도적 구호 활동 등을 훈련한다. CRUZEX 2018에 브라질은 주최국으로 다양한 항공기들을 훈련에 투입했다. 브라질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Northrop F-5EM/FM (총 43대 운용중),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한 AMX International A-1A/A-1M 공격기 (총 47대 운용중) 및 Embraer EMB A-29A/B 수퍼 투카노 COIN기 (총 31대 운용중)가 참가했다. 공중지휘통제기인 Embraer AEW&C E-99 2대, Embraer R-99B SIGINT 정찰기 1대, 수송기는 C-130M 2대, CASA C-295(C-105 Amazonas) 2대 및 KC-130M Hercules 공중급유기 2대, KC-X2 사업에 따라 도입한 Boeing KC-767 공중급유기 1대가 참가했다. 또한 브라질에서 면허생산중인 Eurocopter EC725 수색구조 수송헬기 4대도 참가했다. 그리고 브라질 해군이 단 4대를 운용하고 있는 A-4KU 공격기중 복좌형 AF-1C 1대와 AF-1B 단좌 공격기 1대가 참가했다. A-4 스카이호크는 미 해군 항모용 경공격기로 등장했으며 현재 브라질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역 전투

기로 운용중이다. 1997년 브라질은 쿠웨이트로부터 20대의 A-4KU와 3대의 TA-4KU를 구입했다. 미 해병대 사양 A-4M의 쿠웨이트공급형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도입한 것. 각각 AF-1 및 AF-1A Falcoes (Hawks)로 명명하여 프랑스에서 도입한 중고 항모 사용파울로에서 운용했다. 그러나 이 항모마저 퇴역한 후 브라질 해군은 전투기 비행대 유지를 강력하게 희망하여 단좌형 9대와 복좌형 3대를 현대화하는 사업을 Embraer사와 계약했다. 항전장비와 레이더 개량, 기골 보강 등의 작업을 마친 기체들이 2015년부터 인도되기 시작하여 현재 4대가 배치되어 있다. 브라질 해군은 이 공격기들을 2025년까지 운용할 계획이다. 칠레공군은 F-16AM 5대와 KC-135E 공중급유기 1대를 파견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칠레공군 F-16은 Peace Amstel II 프로그램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2번째로 도입한 중고 F-16A형 18대중 일부로 모두 MLU를 받은 Block 20형 기체들이다. 기체번호는 741부터 758까지이다. 칠레는 2002년 Peace Puma 프로그램에 따라 5억 달

러에 신규 Block 50 F-16C 6대와 D 4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06년부터 인도된 기체들은 F-16C Block 50 기체번호 851부터 856, F-16D Block 50 기체번호 857-8600이다. 이어 네덜란드가 국방비 절감을 위해 시장에 내놓은 중고 F-16AM/BM을 1억 5천만 달러에 Peace Amstel I 프로그램으로 추가 도입한다. F-16A Block 20MLU형 11대, 기체번호 721-731, F-16B Block 20MLU 7대, 기체번호 732-738을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도입했다. 한편 이웃 국가 페루는 처음으로 Cruzex 훈련에 참가하여 9대를 보유중인 Dassault Mirage 2000P 전투기중 4대 및 A-37B 4대중 해외 국가 중 가장 많은 전투기를 파견했다. 페루는 1985년 Mirage 2000P 전투기 단좌형 12대와 복좌형 2대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2009년 1억 4천만 달러를 투입하여 현대화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25년까지 운용할 계획이다. 이 기준은 보기 힘든 페루공군 기종중 하나로 이번 훈련을 통해 널리 공개됐다. 한편 한국이 무상으로 8대를 제공한 바 있어 잘 알려진

A-37B 공격기 4대도 훈련에 참가했다. 페루 공군에게 확인해 본 결과 한국이 제공한 A-37B는 이미 오래전부터 운용을 중단했으며 부품공급으로 활용중이라고 알려졌다. 너무 낡아 전투기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미국은 CRUZEX 2018에 F-16 전투기와 KC-135 급유기를 파견했다. 2010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 참가이다. 텍사스 주 San Antonio의 Kelly Field Annex 통합기지에 배치된 텍사스 주방위공군 149 전투비행단 예하 182 전투비행대 소속 F-16C Block30형 전투기 4대와 와싱턴주 Spokane의 Fairchild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와싱턴 주방위공군 141 공중급유비행단 예하 116 공중급유비행대 소속 KC-135R Stratotanker 1대 및 공군병력 130 명이 참가했다. 훈련중 활주로 주기장에서 엔진을 통째로 교체하며 미 공군의 정비 지원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한편 12대의 A-37B를 운용하는 우루과이는 3대를 이번 훈련에 파견했다. 페루공군 A-37B와 함께 출격하여 근접 항공 지원 임무를 수행했다.

A-37B는 Cessna A-37 Dragonfly로 불린다. 1962년 베트남에서 베타공 게릴라전에 필요한 항공기 요구에 따라 개발되어 1963년부터 75년 사이 577대가 제작됐다. 가볍지만 GAU-2B/A 7.62 mm 캐틀링타입 미니건을 고정기관총으로 장착했고, 야전 활주로에서 운용할 수 있는 강인함에, 1.2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주익 파일린이 8개나 있으며, 저속 비행 성능이 좋아 경공격기로 254대가 베트남에 공급되어 유용하게 사용됐다. 월남이 패망한 후 95대를 회수한 미국은 이중 20여대를 한국에, 16대를 태국에 공급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중남미 국가에 공급하여 방정부군 및 약상 소탕전에 투입한다. 최종 생산된 지 40년이 넘는 2016년 기준으로, 콜롬비아 6대, 엘살바도르 15대, 과테말라 3대, 온두라스 9대, 페루 24대, 우루과이 12대 등이 현역에서 활약 중인 덕분에 아직도 비행중인 A-37B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한국에서 브라질을 방문하기 위해 매우 긴 여정과 시간이 필요했지만, Cruzex 공군 훈련은 독자들에게 A-4 Skyhawk나 A-37처럼 보기 드문 희귀이템을 소개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였다. ●





















